

광주시, 청사 개방... '빛의 정원 예식장' 운영한다

시설이용료 최소...꽃장식 등 별도 4월 첫 예약...스몰·야외웨딩 주목 구내식당서 1인 5천원 국수 제공 "시민 실용적 결혼문화 정착 기대"

광주시가 올해부터 시청사를 예식장으로 개방한다.

오는 4월 시청사 예식장에서 웨딩마치를 울리는 1호 예비부부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예약 문의가 꾸준히 들어오는 등 합리적인 가격에 스몰웨딩, 야외웨딩을 꿈꾸는 예비부부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

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청사 내·외부 공간을 활용해 '빛의 정원'이라는 이름으로 예식장을 운영한다.

도심 속 자연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시청 잔디광장과 장미공원, 고즈넉한 소나무숲, 시민이 머무르고 싶은 1층 시민홀 등 실내·외 어느 공간이든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대상자는 예비부부 또는 양가 부모 중 1인이 광주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이면 이용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시설 사용에 따른 실비(야외

광장 등 실외는 1일 1만원·실내는 시간당 1만원과 냉난방비 별도)만 부담하면 된다. 단, 꽃장식이나 테이블·의자 등 비품은 개별 준비해야 한다. 광주시에 문의할 경우 관련 업체를 안내받을 수 있다.

하객 식사는 별도 비용이 발생한다. 혼주가 원하는 경우 시청 구내식당을 활용해 국수를 제공받을 수 있다. 비용은 1인당 5000원이다. 완성품 위주의 추가 음식도 반입 가능하다. 케이터링(뷔페)도 가능하지만, 야외광장에서만 허용된다.

신청 기간은 예식 6개월 전부터 수시 접수 가능하다. 예식장 이용은 주말 및 공휴

일 주간에 가능하며, 1일 1예식을 기준으로 선착순 접수받을 예정이다.

접수 방법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광주시 총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062-613-2881) 또는 공유누리 플랫폼(www.eshare.go.kr)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실제로 오는 4월 청사 예식장에서 결혼을 앞둔 장모씨(북구 거주)는 "가족과 지인 위주의 특색있는 스몰웨딩을 하고 싶었다"며 "일반 예식장과 비교했을 때 가격, 시간, 공간적으로도 손색없고 가성비도 좋다"고 설명했다.

황인재 총무과장은 "기존에 업무 목적으로만 활용되던 공간이 이제는 시민들에게 특별한 날을 제공하는 장소로 변신하게 됐다"면서 "고비용의 정형화된 실내 웨딩에서 벗어나 도심 속 나만의 결혼식, 실용적 결혼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인제교육원도 광주 시민 누구나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주말 작은 예식장'을 운영하고 있다. 음향·조명 등 행사 진행부터 폐백 의상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노병하기자 byeongha.no@jnilbo.com

전남도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전남도는 고품질 과수 생산과 재해예방 등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수요조사에 나선다.

수요조사대상 사업은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 조성 △과수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유통시설 현대화 △과실브랜드 육성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 △과수 인공수분 꽃가루 생산단지 조성, 7개 사업이다.

이중 가장 수요가 많은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의 경우 원예산업 발전계획의 생산유통통합조직에 참여한 경영체 또는 지역 푸드플랜에 참여 실적 있는 경영체로, 지원 기준은 보조 50%, 자부담 50%다.

2026년 사업을 바라는 과수농가는 오

는 24일까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최근 기상재해로 과수 냉해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어 재해 예방시설 확충이 절실한 상황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많은 농업인의 관심 바란다"며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을 통해 고품질 과수 생산 기반을 마련해 전남지역 농가가 과수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2025년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에 국비 4억7000만 원을 확보, 도비 1억4100만 원을 추가 지원해 10개 시군에 관수 관비 시설, 우량품종 갱신 등 고품질 과수 생산을 위한 시설 및 재해 예방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지현 기자



강기정 광주시장, 신수정 시의회 의장, 정찬호 광주노동권익센터장, 윤종해 한국노총광주지역본부 의장 등이 18일 광주 광산구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열린 '광주노동권익센터 비전선포식'에 앞서 광주노동권익센터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김영배 기자

광주시,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분 전액 지원

보육료 월 7천원·경비 연 6만1천원 ↑

광주시가 올해 어린이집 보육료와 필요경비를 인상키로 하고, 보육료에 대한 인상분은 전액 지방비로 지원한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어린이집 필요경비와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결정, 고시했다. 보육료는 지난해보다 월 7000원 올리고, 필요경비는 연 6만1000원 인상한다.

보육료 수납한도액이란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정부지원 보육료 28만원 외에 3~5세 아동 보호자에게 받을 수 있는 부모 부담 보육료를 말한다.

이번 인상 결정은 최근 어린이집 운영난, 물가 상승, 최저임금 인상 요인 등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 지원시설의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정부 결정 보육료를 따르면 된다. 반면 인

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3~5세 반은 지난해보다 각각 7000원 인상키로 했다.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차량운행비 등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아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실비' 성격의 필요경비 7개 항목 중 3개 항목의 수납한도액을 연 6만1000원 인상(입학준비금 5000원/년, 현장학습비 5000원/분기, 특성화비 3000원/월)했다. 나머지 4개 항목은 동결, 인상을 최소화했다. 필요경비는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행사비, 차량운행비, 아침저녁 급식비, 특성화비용 등이 다.

광주시는 특히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인상 결정된 차액 보육료를 전액 지방비로 지원키로 해 보육료에 대한 학부모의 추가 부담은 없다.

다만 실비 성격의 필요경비는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노병하기자

광주시립도서관, '어린이 그림책 창작교실' 운영

광주시립도서관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그림책을 만드는 전 과정에 참여해 그림책을 출간하는 '어린이 그림책 창작교실'을 운영한다.

18일 시립도서관에 따르면 이번 창작교실은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글쓰기·그리기 등 그림책 출판의 모든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출간된 그림책은 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전시회를 열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오는 3월8일부터 5월10일

까지 매주 토요일 무등도서관에서 진행된다. 참가자는 19일부터 시립도서관 누리집(https://citylib.gwangju.go.kr)에서 선착순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무등도서관(062-613-7727)로 문의하면 된다.

송경희 시립도서관장은 "그림책을 읽고 쓰는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의 문화예술적 감수성을 키워주며 자신감과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병하기자

노동자 권익보호 '광주노동권익센터' 출범

안심ilter 등 5대 비전 선포

광주시가 노동자 권익보호 허브기관인 '광주노동권익센터'를 설립하는 등 '노동인권도시 도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8일 광주시는 광산구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광주노동권익센터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광주노동권익센터는 지난해 7월 제정된 광주시노동기본조례에 근거해 노동관련 3개 센터(광주노동센터·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통합, 올해 1월1일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에 둥지를 틀었다.

센터는 노동법률 상담 및 권리구제 지

원, 이동노동자쉼터 운영, 감정노동자 지원, 산업재해신고센터 운영, 청년ilter 문화개선 등 다양한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서비스와 지원을 전담하게 된다.

이날 선포식에는 강기정 시장,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와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등 노동 관련 단체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선포식은 현판식, 경과보고, 비전선포식 등으로 진행됐다.

광주노동권익센터는 이날 노동이 존중받는 광주 실현을 위해 △일하는 광주 시민의 노동인권 허브 △보이지 않는 노동 존중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공제회 설립

△시민이 안전한 일터문화 조성 △미래세대 안심ilter 추구 등 5대 비전을 발표했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노동권익센터는 광주시와 시의회, 노동계가 함께 지혜를 모아 출발하게 됐다"며 "노동이 존중받는 일하는 모든 사람의 도시 광주를 향해 노동계와 시의회의 손을 맞잡고 뚝뚝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노동권익센터는 광주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무료 노동상담과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노동권익센터(062-951-1981)로 문의하면 된다.

노병하기자

전남도, 공공와이파이 확대로 통신비 295억 절감

총 4892회선...주민·관광객 편의증진 접속 63% ↑...100만명 한달 이용료

전남도는 지역 주민과 방문객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데이터 이용 편의 증대를 위해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확대한 결과 지난해 295억 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18일 밝혔다.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는 관광지, 공공장소 등에 와이파이를 설치해 무료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전남도는 2017년부터 공공와이파이 사

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24년까지 공공장소 등에 총 4892회선의 와이파이를 설치·운영해 주민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관광객 편의 증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실제로 2024년 공공와이파이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연간 접속 횟수는 6억 6000만 회로 전년(4억500만 회)보다 63% 증가했다.

또한 공공와이파이를 통한 연간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은 633만 기가바이트로 집계됐다. 이를 이용료로 환산하면 313억 원에 달한다. 도와 시군이 지불하는 연간

이용료 18억 원을 제외하면 통신비 295억 원을 절감한 셈이다.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선 트래픽통계에 따른 개인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약 6.5기가바이트인 것을 감안하면 도민 100만 명이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황병은 전남도 스마트정보담당관은 "공공와이파이 서비스가 도민 편의증대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점검 등을 통한 지속적 품질관리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